



해명자료

정부혁신
보다 나은



2019년 10월 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10월 4일(총 2매)

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조바라는 나라

“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1조원 예비비 검토” 는 사실무근 [문화일보 10.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-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김포·파주를 포함한 전국의 돼지를 처분하는데 1조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전국의 돼지를 처분하는 방안과 예비비 1조원 사용은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.
- 10월 4일자 문화일보 <정부, 돼지열병 ‘수매·살처분’ 예비비 1兆 검토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 김포·파주를 포함한 전국의 돼지를 처분하는 데 2011년도 구제역 창궐 당시와 마찬가지로 1조 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김포시와 파주시 3km 방역대 밖 돼지 수매와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돼지를 처분하는 방안과 1조 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